

#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0
V. 종합 의견	12



## I. 일반개황

면적	9,597천 Km <sup>2</sup>	G D P	10조 달러(2014년)
인구	13.5 억명(2014년)	1 인 당 GDP	7,716 달러(2014년)
정치체제	사회주의 인민공화제	통화단위	元 (RMB)
대외정책	전방위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6.16 (2014년 평균)

-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3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·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.
- 하지만 수출·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산업설비 및 인프라의 비효율화, 지역 간 불균형, 빈부격차,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. 또한, 부동산 경기 둔화, 지방정부 부채 증가, 그림자금융 문제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2013년 출범한 시진핑(習近平) 정권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, 경제정책의 방향을 내수·소비 주도로 전환하고 산업,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.
- ASEAN, APEC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음. 하지만,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환경오염 심화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경제성장률	10.4	9.3	7.7	7.7	7.4
재정수지 / GDP	-1.2	0.6	0.2	-0.9	-1.0
소비자물가상승률	3.3	5.4	2.7	2.6	2.0

자료: IMF, 국가통계국.

#### □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2014년 경제성장률은 7.4% 시현

- 제조업 중심의 수출·투자 주도형 성장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, 최근 과잉투자, 부동산 경기 침체, 그림자금융 부실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.
- 2012년에는 과잉투자 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억제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7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3년에도 지방정부 부채,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증가율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7.7% 수준을 유지하였음.
- 201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,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, 부동산 경기 침체,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7.4%로 감소하였음.

#### □ 경제성장세 둔화, 주요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

- 중국은 물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고,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과잉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,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7%로 하락하였으며, 2013년에도 교통비와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2.6%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.
-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유가,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0%로 하락함.

#### □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상승

- 중국은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,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201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, 주거보상비 지출 등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0.2%를 기록하였으며, 2013년에는 수출 둔화에 따라 재정수입의 상승폭이 감소하고 교육,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0.9% 적자로 전환됨.
- 2014년에는 정부의 그림자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인프라투자 등 정부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, 토지 매매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.0%를 기록하였음.

#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주택가격 하락, 미분양 주택 면적 증가 등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

- 부동산 과잉투자, 경기부진, 신용공급 규제, 주택재고 과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10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이 2014년 5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주택판매 면적 및 판매액 증가를 또한 감소하고 있음.
  - 2014년 주택판매 면적 및 판매액은 각각 7.6%, 6.3% 감소하였으며, 2014년 11월말 기준 35개 주요 도시의 미분양 주택 면적은 총 2.8억㎡로 전년 동기 대비 18.5% 증가하였음.
- 주택 판매 부진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,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매각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도 증대하고 있음.
- 정부가 주택개발사업 추진, 부동산 규제 완화,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고, 가계부채 및 담보대출의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붕괴시장의 가능성은 낮음.
  - 다만,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투자 재원의 약 44%를 그림자금융을 통해 조달하여, 만약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경우 개발업체의 부도에 따른 그림자금융 상품의 연대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.

## □ 제도권 금융 규제에 따른 그림자금융 팽창

- 제도권 금융에 대한 규제로 민간부문이 그림자금융을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, 2010년 9조 위안에 불과했던 그림자금융 잔액규모가 2013년말 30.5조 위안으로 급증함.
- 금리 통제,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BIS비율 규제 등 당국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따라 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비해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그림자금융 활용도가 상승함.
- 투자 상품의 만기 집중, 그림자금융상품과 투자 프로젝트 수익 회수 사이 클간 만기 불일치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, 최근 일부 기관에 부실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증대됨.
- 다만,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낮고 은행총자산이 풍부하며 그림자금융 확장 억제에 위한 규제 도입,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명확화 및 공조체제 강화 등 정부도 적극 대응하고 있어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임.

## 나. 성장 잠재력

### □ 중산층의 민간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

- 중국은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며, 최근 상해,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민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.
- 중국의 가계소비지출은 2000년 4.6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4.1억 위안, 2013년 21.2억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,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.3%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향후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.
- \*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: 프랑스(82%), 미국(72%), 일본(60%)
- 특히, 2022년까지 중국 도시인구의 75% 이상이 중산층(연소득 9천~34천 달러)으로 성장하고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상위 중산층(연소득 16천~34천 달러)이 전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0%에서 2022년 56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## □ 금융,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음

- 2013년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46.1%로 미국(79.4%), 영국(78.9%), 일본(73.2%)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음.
- 중국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(22.8%) 등 전통적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나, 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유치 등 금융,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활성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.

## 다. 정책성과

### □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

- 2014년 11월 국무원(國務院)은 기업과 개인의 예금을 5만 위안(약 81천 달러, 9천 달러 수준)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 초안을 공표하였음.
-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자의 99.6%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며, 위안화 예금뿐만 아니라 외화표시 예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음.
- 다만, 중국 소재 외국은행 지점, 중국 은행 해외법인 앞 예금이나 은행간 예금, 은행 임직원이 자행에 예치한 예금 등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.
- 2015년초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,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쟁환경 조성 등 효과가 예상됨.

### □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리 체계 도입

- 과도한 인프라 투자, 불균형적 세원 배분 등에 따라,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잔액은 2008년 5,6조 위안에서 2013년 6월말 17.9조 위안으로 급증하였음.
-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액의 80%를 인프라 투자 및 토지 수용에 지출하였으나,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됨. 또한,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자부담, 만기불일치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.

- 중국 정부는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수립 및 부채 억제제를 추진하고 있음.
-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융자플랫폼\* 등을 통한 우회적 자금조달을 금지하고,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공익적 자본지출 또는 기존 채무 상환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.
- \* 지방정부가 재정지원 및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 회사로 지방정부의 보증 및 토지 담보를 기초로 은행,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.
- 또한,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규제 불가를 원칙화하여, 위기 발생시 중앙 정부는 공공경비 축소,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.

**□ 외화거래비용 절감, 화폐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**

-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및 외화거래비용 절감,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, 화폐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임.
-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(약 4조 달러)을 보유하고 있어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, 외화 유입에 따라 증가한 유동성 회수를 위한 통화안정채권 발행 비용 등 유지비용이 막대함.
-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, 직거래 통화 확대,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,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.
- 위안화는 2015년 1월 기준 세계 5위 결제통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, 무역금융 부문에서는 유로화를 제2위 결제 통화로 부상하였음.
-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규모 확대, 주요국과의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면,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**3. 대외경제**

**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**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*
경 상 수 지	237,810	136,097	215,392	182,807	247,019
경 상 수 지 / GDP	4.0	1.9	2.6	1.9	2.4
상 품 수 지	245,540	236,050	212,910	351,770	448,282
수 출	1,476,230	1,805,900	1,798,830	2,147,530	2,255,192
수 입	1,230,690	1,569,850	1,585,920	1,795,760	1,806,910
외 환 보 유 액	2,847,340	3,181,150	3,311,590	3,821,310	4,041,938
총 외 채 잔 액	559,772	710,234	750,391	979,022	1,112,091
총 외 채 잔액 / GDP	9.4	9.7	8.9	10.4	10.6
D. S. R.	3.4	3.5	3.4	1.5	1.7

자료: IMF 및 EIU.

**□ EU, 일본 등에 대한 수출 증가에 따라 2014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**

- 중국은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, 탄탄한 제조업에 힘입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해외투자자산 배당금 유입 확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.6%에 달하였으나, 2013년에는 대외 수출여건 악화, 내수 소비재 생산을 위한 수입 확대 등에 따라 동비중이 1.9%로 하락함.
- 2014년에는 EU,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자본재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.4%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.

**□ 경상수지 흑자 시현,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**

- 2012년에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로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, 2013년 들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반등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5% 증가한 3.8조 달러에 달함.
- 2014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4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됨.

**□ 외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낮은 수준**

- 2014년 GDP 대비 외채 비중은 10.6%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, D.S.R)도 2010년 3.4%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1.7%까지 하락하였음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동향

##### □ 시진핑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

-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(13. 3)에서 출범한 시진핑-리커창 체제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덩샤오핑(鄧小平)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있음.
- 중국의 3대 핵심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, 행정부(국무원), 인민해방군의 고위 간부들까지도 시진핑과 왕치산(姚依林)이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.
- \* 특히, 당국은 '최고지도부(상무위원)는 처벌받지 않는다(刑不入黨)'라는 오랜 불문율을 깨고 저우용캉(周永康)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당적을 박탈하고 사법처리를 진행함.
- 한편, 정치·군사·외교는 국가주석이, 경제는 총리가 맡던 관행을 깨고 국가재정 및 정부개혁 문제도 시진핑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시진핑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.

#### 2. 사회동향

##### □ 대기,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 증폭

-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, 세계 보건기구(WHO)는 중국에서 매년 120만명 이상이 스모그로 매년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.
- 특히, 베이징에서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PM2.5지수가 WHO 일일 기준치의 20배인 500을 넘어서고 있음.
- 2014년 5월, 중국 장쑤(江蘇)성 징장(靖江)시에서 심각한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해 시내 전체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며, 란저우(蘭州)시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되는 등 중국의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.
-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증폭으로 중국 전역에서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, 2014년 4월에는 광둥성에서 화학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.

### 3. 국제관계

##### □ 미국과 경제적, 군사적 관계 협력 강화

-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, 시진핑 국가주석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(10.4), 제2차 중 미 전략경제대화 개최(10.5),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(11.1)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다만, 시진핑 정부는 유소작위(有所作爲 :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)를, 오바마 정부는 '아시아 회귀(Pivot to Asia)'를 표명하며 군사·안보 분야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.
- 특히,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센카쿠(중국명 다오위다오) 열도 분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였으며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가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를 해킹 혐의로 기소함.

##### □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갈등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

- 2014년 1월 필리핀 정부가 공군과 해군을 배치하고 2014년 6월 중국이 실질적 지배권 강화를 위한 인공섬 건설을 개시하는 등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(중국명 난사군도)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.
- 특히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인공섬이 건설이 공군기지 구축,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함.
- 2014년 5월 석유 시추 작업을 둘러싸고 중국국적 선박과 베트남 해군 함정이 분쟁 해역인 시사군도(西沙群島·베트남명 호앙사군도)에서 충돌하는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확대되면서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음.
- 베트남 공안 당국은 반중시위 주동자를 처벌하고 중국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, 중국의 원유 장비 철수를 거듭 요구한 바 있음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풍부한 외화자산 등에 따라 외채구조 양호

-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32.8%를 차지하고 있고,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이 10% 수준으로 매우 낮음.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OECD는 2014년 6월 CRE(Country Risk Expert) 회의에서 풍부한 외환 보유액,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감안하여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2등급으로 유지하였음.
- S&P, Moody's, Fitch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, 탄탄한 제조업 기반,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이유로 각각 AA-(Stable), Aa3(Stable), A+(Stable)의 높은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중전 평가 등급
당 행	B1 (2015. 3)	B1 (2013. 8)
OECD	2 (2014. 6)	2 (2013. 6)
S&P	AA- (2014. 6)	AA- (2010. 12)
Moody's	Aa3 (2014. 3)	Aa3 (2013. 4)
Fitch	A+ (2014. 4)	A+ (2013. 4)

### 3.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최고부보율 적용.
- 네덜란드 Atradius: 최고부보율 적용.
- 영국 ECGD: 최고부보율 적용.
- 독일 Hermes: 단기 전액인수 가능.

## 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2. 8. 24. 수교 (북한과는 1949. 10. 6. 수교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 ('92), 투자보장협정 ('92), 과학기술협력협정 ('92), 이종과세방지협정 ('94), 형사사법공조조약 ('00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('07), 사회보장협정 ('13), 외교관사증면제협정 ('13)

#### 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4> 한·중 교역 규모

단위 : 백만 달러

對 베트남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134,323	145,869	145,288	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합성수지
수 입	80,785	83,053	90,082	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
합 계	215,108	228,922	235,370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교역규모는 2008년 1,68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,289억 달러에 달하였음. 2014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.4% 소폭 감소하고, 수입액은 8.5% 증가하여 2014년 교역규모는 2,354억 달러를 기록함.
-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중국 해외직접 투자는 2014년 기준 24,848건, 49,70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## V. 종합 의견

- 지방정부 부채,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감독강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증가율 둔화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7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,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, 부동산 경기 침체,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7.4%를 기록하였음.
-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,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에 따라 2.6%를 기록하였으며, 2014년에는 임금 인상률 둔화, 유가,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0%까지 하락하였음.
- 교육,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0.9% 적자로 전환되었으며, 2014년에는 토지 매매 부진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.0%를 기록하였음.
-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강력한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있음. 다만, 대기·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.
-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4년에 10.6%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도 1.7%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또한,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.

조사역 박두정 (☎02-6255-5709)

E-mail: pdj@koreaexim.go.kr